

### 낙진법 개정안에 생산자 의견 충분히 반영을

농림수산식품부가 실무검토 중인 낙농진흥법 개정을 위한 '초안'에 대해 전국의 낙농조합장들은 수요자(유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자에게 여러 가지 제약이 포함된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협동조합을 비롯한 낙농가들을 대표하는 생산자단체의 의견이 더욱 폭 넓고 구체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낙농관련조합협의회(회장 박철용·부산우유조합장)는 지난 7월 22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협의회(사진)를 개최했다.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는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가 마련한 낙농진흥법 개정안 초안의 조문에 대해 자세하게 보고했다.

조합장들은 이에 대해 아직 실무검토 중이지만 생산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담기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고 구체적인 윤곽이 더욱 드러나면 한국낙농육우협회와 공조체제를 가동해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합장들은 특히 연간 총량제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법 개정안에 정부의 지원근거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낙농진흥회의 인력을 낙농위원회가 그대로 승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신임 집행부를 구성했다. 조합장들은 신관우 충북낙협장을 신임 회장에 추대했으며, 부회장에는 주영노 춘천철원축협장과 박인석 지리산낙협장을 선출했다. 총무에는 정중호 백제낙협장이 선임됐다. 신임 집행부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2년간이다.

### 유대산정체계 개선 최종안 9월 나올 듯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을 위한 전국 설명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르면 9월 중에는 최종안이 도출될 전망이다.

낙농진흥회(회장 문제풍)는 지난 7월 23일 충남대 농생명과학대에서 개최한 전국설명회(사진)를 끝으로 농가 설명회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연구용역을 맡은 충남대 박중수 교수팀이 이에 따라 그 동안 설명회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보완과정을 거쳐 최종 연구결과를 8월 중 낙농진흥회 소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낙농진흥회는 최종 연구결과를 놓고 8월 중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여론수렴 포함 논의 및 유예기간 설정 등 최적인을 마련해 이를 이사회에 상정, 확정할 예정이다.

소위원회는 8월 중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사회는 이르면 9월 중 개최할 방침이지만 소위원회 논의과정이 길어질 경우 10월까지 연기될 수도 있다는 것이 낙농진흥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낙농진흥회는 지난해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이후 금년 4월 중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상반기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일정이 늦춰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전국설명회에 앞서 지난 1월부터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배부하고 인터넷을 통한 여론을 수렴해 왔다.

한편 이번 전국순회 설명회에서 낙농가들 사이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과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고 낙농가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함께 제시됐다.

이와 반대로 새로운 유대체계는 낙농업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 조진래 의원 자연재해 농가에 확실한 보상 근거 마련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조진래(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7월 23일 농업재해의 범위에 폭염을 규정하고, 농업재해로 인하여 가축이 폐사 또는 유실되는 등 축산농가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폐사한 가축의 처리비 및 사료대금, 어린가축의 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6월 지구 표면 평균온도는 16.2℃로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에 의하면 평균온도를 기록하기 시작한 1880년 이후 사상 최고 수치였다. 이처럼 지구 온난화에 따른 폭우 및 폭염 등의 이상 기상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

어 이에 따른 시설원에 등 농작물 및 가축의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농업재해로 폐사한 가축의 처리비 및 사료대금의 지원, 어린가축의 구입비 등은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는 어린 가축의 구입비만을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피해를 입은 농가의 재기를 위한 보상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특히 축산농가에서는 고온이 장기간 계속되는 폭염이 발생하는 경우, 가축의 소화율 저하에 따른 사료섭취량이 줄고 젖소의 산유량 감소와 번식효율 및 닭의 산란율이 낮아지며 비육우·비육돈의 증체율이 떨어질 뿐 아니라 열사병 등의 발생으로 가축이 폐사하는 등 매년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농업재해로 인하여 가축이 폐사 또는 유실되는 등 축산농가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폐사한 가축의 처리비 및 사료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법상 보상항목인 어린 가축의 구입비 뿐 아니라, 죽은 가축의 처리비, 사료대금까지 보상이 가능하여 농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 및 안심하고 종사할 수 있는 농업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세계 사료곡물 재고율 지속 감소

세계 사료곡물 재고율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월 미국 농무부(USDA)가 발표한 2010/2011년 세계곡물 수급전망에 따르면 세계 사료곡물 재고량은 1억8018만톤으로 전달 예측치인 1억9,193만톤에 비해 1,175만톤이 줄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재고율도 14.5%로 전달 예측치 15.4%보다 0.9%포인트 감소됐다.

세계 옥수수 재고량은 1억4,108만톤으로 전달 예측치인 1억4,732만톤에 비해 624만톤이 줄었다. 재고율도

15.3%로 전달 예측치인 16%에 비해 0.7%포인트 감소됐다. 세계 대두박 재고량도 543만톤으로 전달 예측치인 567만톤에 비해 24만톤이 줄었고 재고율도 2.4%로 전달에 비해 0.1%포인트 감소됐다.

특히 국내 수입이 많은 미국 사료곡물의 재고량은 3,857만톤으로 전월 예측치 4427만톤에 비해 무려 570만톤이 감소됐다. 재고율도 10.8%로 전달 예측치 12.4%에 비해 1.6%포인트나 줄었다. 이 가운데 미국 옥수수의 재고율은 10.3%로 전달 예측치에 비해 1.4%포인트 감소됐고 미국 대두의 재고율도 11.4%로 0.1%포인트 줄었다.

한편 한국사료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제 사료곡물의 톤당 C&F가격이 12일 현재 대두 450.55달러, 대두박 420.67달러로 지난 5일 432.97달러, 410.03달러에 비해 각각 17.58달러, 10.64달러가 올랐다.

### 남성우 농협축산경제대표, 2기 운영방향

남성우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대표는 지난 7일 전북 김제시 소재 농협목우촌 돈육가공공장에서 열린 '제2차 축산경제 운영자문위원회' 자리에서 2기 축산경제 운영방향을 밝혔다.

이날 남 대표는 "글로벌 경쟁체제 하에서 국내 축산업과 축산경제사업 발전을 위해 분골쇄신하라는 막중한 소임이라 여긴다"고 차기 대표이사 당선 의 소감을 밝히고 "축산경제 제2의 도약을 차질 없이 추진해 축산경제가 축산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남 대표는 앞으로 ▲가축개량을 통한 생산성 향상 ▲고품질 사료 공급역량 강화 ▲축산 핵심 후계인력 육성 ▲목우촌을 축산종합식품 가공회사로 운영 ▲농협 안심축산물사업 확대 ▲유통인프라 구축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농·축협자원순환협약 확대 ▲상시 방역시스템 선도적 구축 ▲간척지에 대규모 자원순환형 축산단지 조성, 수출전진기지로 육성 ▲NH팜랜드사업을 소비자 체험 시설로 확대 ▲말·오리·곤충사업 등 신사업 추진 ▲중국·동남아 등에 사료가공 및 축산인프라 시장

진출 ▲국제 곡물유통사업 진출 등을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2011년에 축산경제사업의 자립경영을 달성하고 2015년에는 축협조합의 경제사업량을 15조원으로 달성하겠다는 게 남 대표의 복안이다.

## 내달부터 기준원유량 부분거래 허용

앞으로 목장의 생산 능력을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기준원유량의 일부를 거래할 수 있게 됐다.

낙농진흥회(회장 문제풍)는 6월 29일 2010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를 개최(사진)하고 잉여원유의 차등가격제 시행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낙농진흥회 소속 목장들은 생산량을 채우지 못하면서 불필요하게 보유하고 있는 기준원유량을 부분적으로 매각할 수 있게 됐다. 보유하고 있는 기준원유량을 부분적으로 사고 팔수 있도록 허용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목장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쿼터를 증량할 경우 폐업하는 낙농가의 기준원유량을 전량을 구매해야 했다. 낙농진흥회는 이 같은 기준원유량 부분거래를 위한 거래 기준단위 및 최소보유 기준원유량 등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해 오는 8월부터는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목장에서는 기준원유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던 공쿼터를 매각할 수 있어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준원유량 구입농가들도 쿼터 구입에 따른 금전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기준원유량보다 생산량이 많았던 농가들이 기준원유량을 부분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잉여원유 문제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그 동안 규정에 없었던 목장형유가공 목장에 대한 기준원유량 기준도 신설됐다.

목장형유가공공장을 운영하던 목장들은 그 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 '원유의 생산 및 공급규정'에 따라 전량 남

유 규정을 위반해 온 것이 사실이며 이번 개정에 따라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규제가 해소되게 됐다.

개정된 원유의 생산 및 공급규정은 목장형유가공에 대한 용어 정의를 추가하고 이에 대한 원유생산계약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목장형유가공공장을 운영하는 목장은 기준원유량에서 일부를 목장형유가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직판원유량을 부여받게 됐다.

## 안성축산계, 구제역 피해농가 위한 온정의 손길 보내



지난 7월 16일 오후1시경 내촌낙우회에서 서울우유안성축산계 주관으로 구제역 피해농가 송아지 22마리 기증식을 가졌다.

기증 측에서는 안성시 축산계 (계장 현연수, 연수목장)의 5명이 참석하고, 기증받는 측에서는 포천축산계 (계장 심장선, 선복목장) 이사(배인호, 숲속목장)와 피해농가 23개 농가가 참석하였다.

이날 포천축산 계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구제역 피해농가를 위해 기증을 하신 안성시 축산계 회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하였다.

한편, 서울우유안성축산계는 11도를 김포강화 지역의 구제역 피해농가들에게도 기증한 바 있다. ⊕

〈출처 : 축산신문, 농축산신문, 농어민신문, 농민신문 등〉